

# 판매직 주부의 공평성인지도 ·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Perceived Equity, Rol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Mother Salesclerks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강 사 정 진 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 · 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명예교수 이 정 우

Faculty of Liberal Arts & Basic Scienc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Jeong, Jin-Hee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 Lee, Jeong-Wo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prove, in a practical sens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equity, rol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working in sales departments.

The subjects were employed wives working in sales departments who have at least one child and a spouse, liv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e final data analysis used 487 out of 668 questionnaires.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SPSS/PC WIN which included frequencies, mean,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 Cronbach's  $\alpha$ ,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their education level was low, the education level of their spouse was high, th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couples was high, and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was low, their perceived emotional

relationship was equal. As they were old, th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couples was high, and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was low, their perceived position in sharing household chores was equal. On the other hand, as they were younger, the education level of their spouse was high, th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couples was low, other-oriented perfectionism was high, the reason for getting a job lay in supporting the family, and overtime hours worked, there was a higher level of role stress.

2) The influential variables which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in order of importance, wer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couples, mother's role stress, age, non-financial reason of getting a job, and sharing household works. For relative contribution degree about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were revealed as the most influential ones. Thus,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couples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to a great degree. Furthermore, the study proved that not only role stress variables but also perceived equity variables contributed to the life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판매직 주부(Married Working-Mother Salesclerks), 공평성인지도(perceived equity), 역할스트레스(role stres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I. 서론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이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 40.0%에서 1999년 47.9%, 2001년 49.0%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02), 기혼 여성의 취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취업자는 직종별로 서비스 및 판매직(35.2%), 사무직(17.1%), 농림어업직(11.6%), 단순노무직(10.3%)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61.6%로 미혼여성의 38.4%에 비해 많았다. 이는 자녀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여성들의 경우, 손쉽게 취업 및 재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판매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업주부 중에서 판매직의 비중이 높아져 감에 따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전체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연구가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거나, 사무직(서지원·이기영, 1997; 이미선, 1995)과 전문직(이기영·구혜령, 1992; 이미선, 1995; 전영자, 1992), 생산직(김혜경·신현옥, 1990; 조희금, 1995)에 초점을 두었을 뿐, 판매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

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부의 생활만족도는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직종의 성격상 다른 직종과 달리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 이익과도 직결되므로 더욱 더 중요하다.

주부의 취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중 공평성 이론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각자가 직업과 결혼생활을 위해 들이는 비용, 특히 직업역할과 가사역할 수행을 위해 소모하는 시간이나 노력 등에서 불공평성을 인지할수록 복지감이 낮으며, 디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았고(Longmore & Demaris, 1997),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Blanding, 1995; Molm, 1991; VanYperen & Buunk, 1990; Ward, 1993; Wesson, 1996) 디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McQuillan, 1998), 부부간 공평성인지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족의 남편은 비취업주부 가정보다 많은 가사 분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은 여전히 부인에게 있다(Durkac, 1987; Vannoy-Hiller & Philliber, 1989). 이 책임감은 맞벌이 가족의 주부에게 직업-가족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Duxbury, Higgins, & Lee, 1994; Gilbert & Rachlin, 1987) 이러한 역할스트레스는 생활만족(김영희,

1992), 신체적·심리적 증상(이연숙 외 3인, 1991),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Wiersma & Van den Berg, 1991)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할스트레스는 취업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문숙재·허경옥·홍윤정, 1997; 신기영·옥선화, 2000; 전영자, 1992; 조은숙·옥선화, 1998; 조희금, 1995, Small & Riley, 1990)로 이루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연계된 연구(김나비, 1999; 조정문, 1995; 이정우·강기연, 2000; 전지원·이정우, 2000)정도이며, 판매직 주부를 대상으로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생활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이 손쉽게 취업하고 있는 판매직 주부를 대상으로 부부간 공평성인 지 수준, 역할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배경 변인,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간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판매직 주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나아가 판매직 주부를 위한 정책 입안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아울러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응답자들에게 기여와 결과에 있어서 자신과 배우자의 차이를 계산하는 TUW(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 척도를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공평성을 측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평성

Adams(1965)에 의해 처음 주창된 공평성 이론은

주로 공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Adams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애인 및 부부 관계에까지 공평성 이론이 확장되었다.

공평성은 평등성의 개념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평등성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주로 결과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공평성은 '기여에 비례한 보상'을 강조함으로써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다(Fraser, 1994). 즉 평등성은 결과물(output)의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반면, 공평성은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여(input)<sup>1)</sup>와 결과물(output)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계산된다.

따라서 공평성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까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평등성의 상위 개념이며(차하순, 1983), 평등성보다 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평성 이론의 중심 개념은 공평성의 조건보다는 공정하다는 개인의 느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개념(Vannoy-Hiller & Philliber, 1989)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평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상대방의 기여 및 결과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관계를 불공평하다고 인지하게 된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의 불공평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관계로부터 얻는 자신의 상대적 이익이 배우자 것보다 크다고 인지하는 유리한(overbenefited) 불공평이며,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인지하는 불리한(underbenefited) 불공평인 경우이다. 유리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들이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의 감정, 혹은 관계가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불리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분노와 실망, 좌절감,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Schafer & Keith, 1981). 즉, 공평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두 상황 모두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Yogev & Brett, 1985). 결국 공평성 이론에서 공평한 관계란 교환관계 내 모든 개인들의 기여 대 결과의 비율

1) input은 기여, 투입, 투입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input을 '기여'로 쓰고자 한다.

(input/output ratio)이 같을 때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Hatfield, Traupmann & Walster, 1979; Yogev & Brett, 1985).

이러한 공평성 이론의 원리는 공평성이 결혼관계에 있어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Geasler, 1990; Peterson, 1990; Traupmann & Hatfield, 1983). 그 예로, 공평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불공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그들의 관계에 더욱 만족한다는 연구(Gilbert & Rachlin, 1987), 결혼 관계에서 공평성인지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Wiersma & Van den Berg, 1991), 취업주부의 공평성인지 정도와 우울(depression)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Schafer & Keith, 1981), 또한 불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개인들은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결혼만족도가 낮다는(Davidson, 1984; Reynolds, 1991) 연구들이 있다.

한편 공평성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평성의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평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직접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하나 또는 여러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배우자와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가를 묻는 방법으로 Hatfield(1978)의 Global Measure of Equity/Inequity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조정문(1995), 박정희(1998)가 이 방법으로 공평성을 측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현재의 결혼생활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의 문항에 대해 '내가 훨씬 더 손해', '내가 약간 더 손해', '서로 비슷', '남편/아내가 더 손해', '남편/아내가 훨씬 더 손해'의 다섯 가지 유목에 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정방법으로는 총체적 측정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전반적 기여와 결과 그리고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전반적 기여와 결과를 각각 물어서 그 비율로 계산하는 Walster 등(1978)의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s, Outcomes, and Equity/Inequity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연구 중 강기연(2000)이 총체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혼 공평성을 측정<sup>2)</sup>하였다.

마지막 측정방법은 합산적 측정방법으로 이는 구체적 항목에 대해 자신의 기여와 결과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와 결과를 묻는 방법으로, Traupmann 등(1981)의 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TUW)가 대표적이다.

공평성 측정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체적 측정방법만으로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합산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이정우·강기연, 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산적 측정방법으로 공평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 2. 역할스트레스

최근의 한 조사(2001)에 의하면, 현재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취업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하는 것'(39.8%)이라고 응답한(경향신문, 2001년 7월 23일 33면)것을 볼 때,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은 직업 역할과 가정 역할을 동시에 양립시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들은 다중 역할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가족에게 특히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직업 생활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직업 활동과 주부로서의 역할 중 그 어느 것도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가정 생활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안선

2) 결혼공평성을 측정한 문항은 4문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기회들을 포기하였다.
- ② 나의 배우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기회들을 포기하였다.
- ③ 나는 결혼함으로써 인생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
- ④ 나의 배우자는 결혼함으로써 인생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

자·이정우, 1996; 이연숙 외 3인, 1991; Duxbury, Higgins, & Lee, 1994). 특히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시간의 절대적 부족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Guelzow et al., 1991; Higgins et al., 1992).

본 연구에서의 역할스트레스란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주부가 경험하는 역할 긴장 및 역할 과중을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보고(Pearlin & Schooler, 1978; Small & Riley, 1990), 판매직 주부가 직업인 역할과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가사 역할, 딸·며느리 역할이라는 다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이 역할 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정의한다.

###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각자의 기준(criteria) 또는 표준(standard)에 따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현재 자신의 생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76).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생활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측정은 전업주부의 것과는 달라야 하며(채정숙 외 3인, 1997), 취업주부들의 생활만족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 기혼 여성 개인을 중심 체계로 할 때, 이들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및 직장 생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조희금, 1998). 따라서 취업주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과 가정 생활 영역의 조화라고 판단하여 판매직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만족과 직장생활만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기영과 옥선화

(2000)의 연구에 의하면, 직종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비전문직 집단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전문직 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조희금(1998)의 연구에서는 생산직 기혼 여성의 전체적인 생활만족 수준은 보통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직업 지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한다(Mirowsky, 1985)는 연구가 있다.

### 4. 공평성인지도 ·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결혼 관계에서의 공평성이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 공평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Aida and Falbo, 1991; Geasler, 1990; Kollock, et al., 1994; Peterson, 1990)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보면, 김나비(1999)의 연구에서 기혼 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변인군은 결혼생활 공평성인지도 변인이었으며, 전지원과 이정우(2000)의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 영역에서의 공평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 분담에 대한 공평성인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객관적인 가사 노동 시간보다는 가사 분담에 대해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혼만족이 달라진다. Yoge와 Brett(1985)과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 즉 가사 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인지될 때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역할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보면,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이형실(2000)의 연구 중 가족 및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혼 취업 여성과 남성의 부부 관계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맞벌이 부부를 대

상으로 연구한 하현숙과 김득성(1996)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면서 겪는 역할 갈등과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간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즉 남편과 부인의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

## 5. 공평성인지도 ·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인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 (1)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평성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이정우 · 강기연, 2000; Reynolds, 1991; Schafer & Keith, 1981)와 연령에 따라 공평성인지도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강기연, 2000; VanYperen & Bunnk, 1990)가 있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생산직 취업주부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나 집안일 때문에 직장 생활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금 · 이연숙, 1998).

한편 연령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보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 (2) 주부 및 남편의 학력

학력에 따른 공평성인지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Wesson(1996)의 연구에서 남편의 교육 수준은 부부의 공평성 수준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기연(2000)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맞벌이 부인의 공평성인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과 역할 갈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역할 갈등 정도가 낮아지고(Voydanoff & Kelly, 1984), 직업-가정 갈등도 낮아진다는 연구(임혜경 · 임정빈, 1995)가 있는 반면, 주부의 교육 수준은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정순희, 2001)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학력과 생활만족도간

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mpbell, et al, 1976; Longmore & Demaris, 1997).

### (3) 가사보조자 유무

취업주부의 공평성인지도의 연구에서 가사보조자 유무를 독립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취업주부들은 가사 시간을 줄이고 시간 절약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상품화된 노동을 이용하고 있으며(Presser, 1994), 가사일 그리고 아동 양육과 같은 책임의 '위임'은 맞벌이 가족들이 역할 과중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된바 있다(Bird & Bird, 1986). 이를 바탕으로 가사조력자 유무는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사조력자가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으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일을 위임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은희, 2001).

### 2) 심리적 변인

#### (1) 부부간 의사소통도

부부간 의사소통도에 따른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일치한다. 대화만족도가 낮을수록 불공평성 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홍윤정, 1996),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부간 공평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전지원 · 이정우, 2000). 한편 부부간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진희, 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빈도가 많거나 부부간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Goldsmith, 1996)가 높았다.

#### (2) 성역할 태도

주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공평성인지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다. Greenstein(1996)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불공평한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공평성인지 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lair와 Johnson(1992)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주부의 공평성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Lennon과 Rosenfield(1994)의 연구에서도 남성이나 여성 공히 성역할 태도와 공평성인지간에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성 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심리 정서적 갈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및 취업주부 자신들의 태도 및 가치관이 심리 정서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장혜경 · 김영란, 1998)를 근거로 하여, 성역할 태도가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역할 태도와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의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 (3)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과 타인지향적

#### 완벽주의성향

완벽주의성향과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생활만족도를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감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부부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주부의 성격 특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은 판매직 주부 자신에 대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현대의 가족이 부부관계가 중심임을 고려하여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의 두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 3) 직업관련 변인

#### (1) 취업동기

김나비(1999)의 연구에 의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한 집단'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취업한 집단'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취업한 집단'보다 결혼 생활 공평성을 더 낮게 인지하였다. 한편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생산직 기혼 여성들은 가정 및 직장 생활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며(조희금 · 이연숙, 1998), 비자발적인 동기로 취업한 주부의 경우, 시간 갈등 및 긴장 정도가 높았고(이기영 · 구혜령, 1992) 스트레스 수준도 높았다(조희금, 1999). 또한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경제적 동기로 취업했다고 지각할수록 가족역할과 직업 역할간

의 갈등을 많이 느끼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저하되고(Keith & Schafer, 1983), 결혼만족도가 낮았다(도미향 · 최외선, 1990).

#### (2) 근무 시간의 양과 초과 근무 여부

근무 시간과 공평성 인지간의 연구 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Sanchez와 Kane(1996)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는 부인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에 있어서 부인이 더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Lennon과 Rosenfield(1994)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인의 근무시간이 맞벌이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인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근무 시간은 맞벌이 부인의 역할 과중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Higgins, Duxbury, et al., 1992; 이명신, 1998). 한편 근무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이연숙 외 3인, 1991) 삶의 질 수준이 낮았으며(고정자, 1998), 생산직 주부의 개인 생활만족도도 낮았다(조희금, 1998).

선행 연구들을 보면 근무 시간의 양과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초과 근무 여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 근무 여부도 취업주부의 시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므로, 절대적인 근무 시간의 양과 함께 초과 근무 여부가 판매직 취업주부의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가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Vannoy-Hiller와 Philliber(1989)는 소득의 기여가 배우자간의 공평성에 더 가깝도록 하고 부부권력을 더욱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취업주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가정내 경제적 기여도가 커지고, 이는 주부에게 자원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역할 긴장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수준이 증가하며(Spitze, 1988),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Rogers, 1999).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판매직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판매직 주부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은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역할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군, 공평성인지도 변인군과 역할스트레스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2. 조사도구의 구성

- 1) 심리적 및 직업관련변인<sup>3)</sup>
- 2) 공평성인지도

본 연구는 공평성인지도를 합산적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Traupmann 등(1981)이 개발한 TUV (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TUV척도는 개인이 관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3개 범주(사적, 정서적, 일상 생활) 22문항과 개인이 관계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한 4개 범주(사적, 정서적, 일상생활, 기회를 잃고 얻음) 24문항의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Wesson, 1996 연구방법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결과 범주 중 '기회를 잃고 얻음'의 2문항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기여척도 12문항과 결과척도 12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요인은 정서적 영역(9문항)과 가사분담 영역(3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한 응답자가 자신과 배우자의 기여와 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응답자이므로 기여척도는 주부 자신의 기여와 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기여 정도를, 마찬가지로 결

과 척도도 주부 자신의 결과 정도와 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결과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의 8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응답범주를 가지며, 공평성인지도는 다음과 같은 공평성 계산 방식에 의해 계산된다.

- 공평성 점수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Weq(주부의 공평성 점수)  
= Ow(주부의 결과)-Iw(주부의 기여)
  - Hep(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공평성 점수)  
= Oh(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결과)-Ih(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기여)
  - Ceq(부부간 공평성인지도)  
= Weq(주부의 공평성 점수)-Hep(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공평성 점수)

부부간 공평성인지도는 주부의 공평성 점수에서 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공평성 점수를 빼는 방법으로 구한다<sup>4)</sup>. 이때 계산된 점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된다. 첫째, 계산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보다 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값이면 불리하게(under-benefited) 불공평한 관계로, 점수가 +값이면 유리하게(over-benefited) 불공평한 관계를 의미한다. 둘째, 계산된

3)

심리 변인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이정순(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함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성역할태도	강기연(2000)의 연구를 참고 함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완벽주의 성향	김기현(2000)이 변안한 것을 수정보안함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직업 관련 변인	취업동기	경제적 동기, 비경제적 동기
	근무시간의 양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근무시간
	초과근무여부	한다, 하지 않는다
	주부의 가계 소득기여도	총가계소득에서 주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4) 본 조사 대상자의 정서적 공평성인지도의 범위는 -9.33 ~ 7.78이며,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는 -11.00 ~ 7.67이며, 전체 부부간 공평성인지도는 -7.25 ~ 5.67이다.



값을 절대값으로 채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을, 점수가 낮을수록 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역할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 척도는 선행 연구(김기현, 2000; 전영자, 1992; 조은숙, 1997; 조희금, 1995; Pearlin & Schooler, 1978)를 토대로 총 2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척도는 선행 연구(계선자 · 박미금, 1994; 박미석, 1996; 이정우 · 박미금, 2000; 이정우 · 정진희, 1998)를 참조하여 11문항을 재구성하였다.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 만족 · 직장생활 만족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도구의 신뢰도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변 인		문항수	신뢰도 계 수
심리적 변 인	부부간 의사소통도	6	.67
	성역할 태도	4	.57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4	.76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4	.75
공평성 인지도	주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여	12	.85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여	12	.88
	주부가 결혼생활에서 얻은 결과	12	.89
	남편이 결혼생활에서 얻은 결과	12	.89
역할 스트 레스	아내 역할	6	.91
	어머니 역할	6	.93
	가사 역할	5	.87
	딸 · 며느리 역할	4	.80
	직장인 역할	4	.79
생활만족도		11	.81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배우자가 있는 판매직에 취업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판매직 주부는 판매직 중에서도 최근 들어 대형 할인점의 급속한 성장과 주부들의 취업이 용이한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전화보험모집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동아일보, 2002년 11월 4일자 40면)를 감안하여, 대형 할인점의 판매직 주부와 소매방문판매자인 보험모집인<sup>5)</sup>과 통신판매 종사자인 전화보험모집인(텔레마케터) 등을 대상<sup>6)</sup>으로 하였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독자적 소득환산과 근무시간 규정이 모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2002년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6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부실기재 및 미응답을 뺀 48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Cronbach's  $\alpha$ 계수, 요인분석, 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sup>7)</sup>.

5) 한국직업표준분류에 의하면, 판매직은 ①도소매 판매 종사자 ②통신판매 종사자 ③모텔 및 홍보종사자로 구분되는 데, 그 중 보험모집인은 소매 방문판매 종사자 중 소매 방문판매원으로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다니면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선전을 하거나 할부금을 수금하기도 한다(www.nso.go.kr).

6) 조사대상자는 대형 할인점 판매직 주부 242명(49.7%), 보험모집인 145명(29.7%), 전화보험모집인 100명(20.5%)이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 영역별로 보면, 정서적 영역의 평균은 -.13이고 가사분담 영역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 1) 판매직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표 3>에 의하면,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의 평균은 -.22점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판매직 주부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

7) 다중공선성의 여부는 VIF 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VIF값이 10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강병서, 1999).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VIF값을 살펴본 결과 1.039~2.870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배경변인의 일반적 경향

배경변인		범주	빈도(평균)	%(표준편차)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35세 미만	113	23.2
		35세 이상~40세 미만	129	26.5
		40세 이상~45세 미만	141	29.0
		45세 이상	104	21.4
		합계	487	100.0
	주부의 학력	고졸	350	71.9
		전문대졸	67	13.8
		대졸 이상	70	14.4
		합계	487	100.0
	남편의 학력	고졸	179	36.8
		전문대졸	92	18.9
		대졸 이상	216	44.4
		합계	487	100.0
	막내 자녀의 연령(세)			11.7
가사조력자 유무	없다	333	68.4	
	있다	154	31.6	
	합계	487	100.0	
심리적 변인	부부간 의사소통도(1~5점)*		3.48	.60
	성역할 태도(1~5점)*		3.67	.6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1~5점)*		4.06	.57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1~5점)*		3.41	.69
직업관련 변인	취업 동기	경제적 동기	288	59.1
		비경제적 동기	199	40.9
		합계	487	100.0
	초과근무 여부	한다	231	47.4
		하지 않는다	256	52.6
		합계	487	100.0
근무시간의 양(시간)*			8.25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			42	

\* 표시된 변인은 연속변인이므로,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표시함.

〈표 3〉 판매직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N=487)

구 분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평 균	표준편차
영역	정서적 영역	-.13	1.35
	가사분담 영역	-.51	1.66
전 체		-.22	1.15

\* 공평성인지도의 평균이 0에 근접할수록 '공평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방향일수록 '유리하게 불공평함'을 -방향일수록 '불리하게 불공평함'을 의미한다.

평균은 -.51이다. 이처럼 판매직 주부들이 가사분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이유는 판매직의 경우 주부 본인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91.5%인데 반해 남편은 1.6%로 나타난 결과(한국여성개발원, 200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판매직 주부 자신과 그들의 남편과의 가사분담 정도를 비교해 보면, 판매직 주부는 남편에 비해 전적으로 가사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분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표 4〉에 의하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 영역 중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어머니 역할로 5점 만점에 3.12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사 역할, 아내 역할, 딸·며느리 역할 순으로 낮아졌으며, 직장인 역할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N=487)

변 인	하 위 영역	평 균	표준편차
역 할 스트레스	아내 역할	2.79	.81
	어머니 역할	3.12	.96
	가사 역할	3.02	.92
	딸·며느리 역할	2.28	1.10
	직장인 역할	2.12	.78
	전 체	2.76	.68
생활만족도		3.24	.50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경우 어머니 역할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은숙과 옥선화(1998)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어머니 역할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여성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탁아시설이나 육아 휴직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도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조사대상자의 직장인 역할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희금과 이연숙(199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판매직 주부는 직업적으로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주부에 비해 직업적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편이고, 유동 근무 및 시간제 근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인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 판매직 주부의 배경변인이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및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1) 판매직 주부의 배경변인이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표 5)은 주부의 연령( $\beta=-.13$ ), 부부간 의사소통도( $\beta=-.18$ ), 성역할 태도( $\beta=.10$ ),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beta=.18$ )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설명력은 8%이다. 이는 판매직 주부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배경변인의 설명력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판매직 가정의 부부간 공평성인지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제 변인을 탐색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의 연령과 공평성인지도와의 관계를 보면, 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평성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연구(Reynolds, 1991; Schafer & Keith, 1981)와

<표 5> 판매직 주부의 배경변인이 부부간 공평성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력

(N=487)

배경변인		종속변인		가사분담 공평성		전 체	
		b	$\beta$	b	$\beta$	b	$\beta$
사회인구 변인	주부의 연령	-.01	-.08	-.03	-.13**	-.01	-.13**
	주부의 학력	.07	.11*	.03	.03	.03	.07
	남편의 학력	-.05	-.11*	-.01	-.02	-.02	-.07
	가사보조자 유무*	.06	.03	.18	.06	.10	.04
심리변인	부부간 의사소통도	-.34	-.19***	-.34	-.14**	-.28	-.18***
	성역할 태도	.14	.08	.15	.07	.15	.10*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36	.19***	.31	.12*	.29	.18**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06	-.04	-.03	-.01	-.06	-.05
직업관련 변인	취업동기*	-.02	-.01	.17	.06	.00	.00
	근무시간의 양	.00	.02	.00	.01	.00	.02
	초과근무 여부*	.01	.01	-.07	-.02	-.01	-.01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	-.16	-.03	.07	.01	-.05	-.01
상 수		.610		1.096		.743	
F-value		3.51**		2.09**		3.39***	
R <sup>2</sup>		.08		.05		.08	

\* 가사조력자유무 : 기준집단(있다)      비교집단(없다)  
 취 업 동 기 : 기준집단(비경제적)      비교집단(경제적)  
 초과근무 여부 : 기준집단(하지 않는다)      비교집단(한다)

\* 점수가 낮을수록 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도구의 구성을 참조할 것.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판매직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지원과 이정우(200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성역할 태도와 공평성인지를 보면,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부간 공평성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불공평한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여 오히려 공평성인지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Greenstein(1996)와 강기연(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부부간을 불공평한 관계로 인지한다는 결과는 완벽주의와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을 지니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쉽다고 한 Beck(1976)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판매직 주부는 정서적 관계에 대해 더욱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의 학력이 맞

벌이 부인의 공평성인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강기연(2000), 이어봉(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편 중심의 불공평한 관계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혼생활과 주변 여성들의 결혼생활을 비교해 볼 때, 이들은 대체로 위안을 삼으며(김명자, 2002), 오히려 불공평한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판매직 주부는 정서적 관계에 대해 더욱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부의 공평성수준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Wesson(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의 교육은 인간존중·인간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의 영향으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평등주의에 대한 지각이 높을 것이며, 이것이 부부관계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사분담의 경우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분담에서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평성인지도가 높다는 연구(Reynolds, 1991; Schafer & Keith, 198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초기에 지닌 남성성이 중년기로 들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상호 평등의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김명자, 1998)으로 보여지며 또한 결혼초기 보다는 남편의 가용시간의 증가로 인해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에 의하면 공평성인지도의 전체 및 하위 영역별로 본 공통적인 변인은 부부간 의사소통도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판매직 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 입증되었으며,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과 공평성인지도와와의 관련 연구가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취

업주부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여, 작은 실패에도 자신이 가치없다고 느끼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판매직 주부의 배경변인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적인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표 6)은 주부의 연령( $\beta=-.19$ ), 남편의 학력( $\beta=.15$ ), 부부간 의사소통도( $\beta=-.19$ ),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beta=.20$ ), 취업동기( $\beta=.16$ ), 근무시간의 양( $\beta=.20$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력은 약 21%이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이기영 · 구혜령, 1992; 조희금 · 이연숙, 1998)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낮을수록,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낮을수록,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표 6〉 판매직 주부의 배경변인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N=487)

배경변인	중속변인	아내역할		어머니역할		가사역할		딸·며느리역할		직장인역할		전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 인구 변인	주부의 연령	-.01	-.12*	-.03	-.21***	-.00	-.06	-.02	-.09	-.02	-.17***	-.02	-.19***
	주부의 학력	-.00	-.02	-.03	-.06	-.02	-.04	-.02	-.02	.02	.04	-.02	-.04
	남편의 학력	.05	.13**	.04	.09	.04	.09	.05	.10*	.02	.06	.05	.15***
	가사보조자 유무*	.00	.00	.02	.01	.05	.02	-.30	-.13**	-.01	-.01	-.04	-.03
심리 변인	부부간 의사소통도	-.30	-.23***	-.28	-.18***	-.20	-.13**	-.00	.00	-.20	-.16**	-.21	-.19***
	성역할 태도	.05	.04	.20	.12***	.06	.04	.04	.02	-.07	-.06	.05	.05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20	-.14**	.02	.01	-.07	-.04	-.07	-.04	-.21	-.15**	-.09	-.08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29	.25**	.16	.12*	.15	.11*	.17	.11*	.21	.19*	.20	.20***
직업 관련 변인	취업동기*	.20	.12**	.25	.13**	.28	.15**	.21	.10*	.16	.10*	.22	.16***
	근무시간의 양	.06	.19***	.09	.22***	.10	.26***	.03	.06	-.03	-.08	.06	.20***
	초과근무 여부*	.03	.02	.06	.03	.15	.08	.13	.06	.05	.03	.08	.06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	-.36	-.10*	-.23	-.05	-.02	.00	-.04	-.01	.29	.08	-.08	-.03
상 수		2,916		3,134		2,267		1,699		3,583		2,695	
F-value		8.53***		9.49***		7.06***		2.97***		5.14***		9.69***	
R <sup>2</sup>		.19		.20		.16		.07		.12		.21	

\* 가사조력자유무: 기준집단(있다)                      비교집단(없다)  
 취 업 동 기 : 기준집단(비경제적)                      비교집단(경제적)  
 초과근무여부 : 기준집단(하지 않는다)                      비교집단(한다)

\* P<.05 \*\*P<.01 \*\*\*P<.001

근무시간이 길수록,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가 낮을수록 판매직 주부들은 아내 역할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근무 시간이 길수록, 판매직 주부들은 어머니 역할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꼈다. 한편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낮을수록,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근무 시간이 길수록, 판매직 주부들은 가사 역할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딸·며느리 역할스트레스의 경우,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보조자가 있을 경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있을 때, 근무시간이 길수록 판매직 주부들은 딸·며느리 역할간에 역할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가사보조자가 있을 경우<sup>8)</sup> 본 조사대상인 판매직 주부의 가사보조자는 파출부나 가정부보다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역할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낮을수록,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낮을수록,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했을 경우 판매직 주부들은 직장인 역할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역할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 영역별로 본 공통적 영향 변인은 취업동기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으로 나타났다. 취업동기가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 결과(이기영·구혜령, 1992; 조희금, 1999)와 일치된 경향을 보여,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주부가 직장과 가정내 역할 즉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전체 및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아내 역할스트레스에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남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그 기준으로 상대를 완벽하고 엄

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주부 자신은 남편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평가해야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근무시간의 양은 딸·며느리 역할스트레스를 제외한 가정 역할영역에서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이 맞벌이 부인의 역할과중 및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한 연구(이명신, 1998; 조희금·이연숙, 1998; Guelzow & Burden, 1991; Higgins, Duxbury, & Richard, 1992)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도 근무시간의 양은 역할스트레스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 5.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부부간 의사소통도( $\beta=.25$ ), 어머니 역할스트레스( $\beta=-.23$ ), 주부의 연령( $\beta=-.17$ ), 취업동기( $\beta=-.11$ ),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 $\beta=-.09$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6.4%이다.

심리적 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도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빈도가 많거나 부부간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Goldsmith, 1996)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 역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여전히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Ferree, 1991), 그 책임감이 직업-가족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며(Gilbert & Rachlin, 1987), 이러한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김영희, 1992)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8) 본 연구에서 가사보조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사보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7명 중 154명이며, 친정어머니(60명), 시어머니(54명), 기타 친척(29명), 파출부나 가정부(11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주부의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양명숙 · 하경란, 1997; 이희정 · 이숙현, 1995)와 상이한 결과이며, 사무직 주부의 경우, 연령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는 감소하였다는 이미숙(2000)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부부간에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비경제적 동기로 취업했을 경우,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가 높을수록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표 7)를 보면, 1단계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군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2단계인 심리적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부부간 의사소통도( $\beta=.34$ )가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 3단계에서 직업관련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동기( $\beta=-.15$ ), 근무시간의 양( $\beta=-.12$ )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이 경제적 동기로 취업했다고 지각할수록 가족 역할과 직업 역할간의 갈등을 많이 느껴서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수준이 저하되며(Keith & Schafer, 1983)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하는 경우가 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한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

<표 7>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세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N=487)

배경변인		종속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 인구 변인	주부의 연령	-.07	-.09	-.01	-.07	-.01	-.09*	-.01	-.11**	-.13	-.17***		
	주부의 학력	.06	.02	.01	.03	-.00	.00	.00	.01	.01	.00		
	남편의 학력	.02	.07	.01	.03	.07	.03	.00	.02	.09	.04		
	가사보조자 유무	-.06	-.06	-.06	-.06	-.07	-.06	-.05	-.06	-.05	-.04		
심리 변인	부부간 의사소통도			.28	.34***	.26	.32***	.24	.29***	.20	.25***		
	성역할 태도			-.05	-.06	-.04	-.05	-.03	-.04	-.01	-.02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02	.02	.02	.02	.04	.05	.04	.05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04	.01	.02	.02	.01	.01	.03	.04		
직업 관련 변인	취업동기					-.15	-.15**	-.15	-.14**	-.11	-.11*		
	근무시간의 양					-.03	-.12***	-.02	-.12**	-.02	-.08		
	초과근무 여부					-.06	-.07	-.06	-.07	-.05	-.05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					-.06	-.03	-.06	-.03	-.05	-.02		
공평성 인지도	정서적 공평성							-.04	-.10*	-.04	-.09		
	가사분담 공평성							-.03	-.10*	-.03	-.09*		
역 할 스트레스	아내 역할									.04	.06		
	어머니 역할									-.12	-.23***		
	가사 역할									-.04	-.08		
	딸·며느리 역할									.02	.05		
	직장인 역할									-.04	-.07		
상 수		3,222		2,423		2,955		3,005		3,451			
F-value		2.30		8.75***		8.04****		7.82***		7.99***			
R <sup>2</sup>		.021		.14		.18		.20		.26			
R <sup>2</sup> 변화량				.12***		.04***		.02***		.06***			

\* 가변인 : 가사조력자 유무 : 기준(있 다) 비교(없 다)  
 취 업 동 기 : 기준(경제적) 비교(비경제적)  
 초과근무 여부 : 기준(한 다) 비교(하지 않는다)

\* P<.05 \*\*P<.01 \*\*\*P<.001

있고(노미향·최외선, 1990; 한경미, 1995), 자아발전을 위해 취업을 한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았으며(고정자, 1998), 생산적 기혼여성의 경우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취업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조희금, 1998)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4단계로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변인을 추가할 때 정서적 공평성인지도( $\beta=-.10$ )와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 $\beta=-.10$ )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평성이 결혼만족의 예측 변인이며, 결혼적응과도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Davidson, 1984)와 일맥상통하며, 이로써 판매직 주부의 경우 부부간 공평성인지도는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역할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할 때, 어머니 역할스트레스( $\beta=-.23$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로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어서 2단계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약 14%로 1단계에 비해 약 1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3단계에서 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다음 4단계에서 약 2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 역할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6%로 나타났고, 약 6%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이상에 의하면 독립변인군 중 심리적 변인군이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스트레스 변인군과 부부간 공평성인지도 변인군도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기여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심리적 변인군 중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부부 관계의 악화는 물론 가정의 안정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또한 역할스트레스 중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만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담이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취업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보육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같은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판매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본인이 양육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한국여성개발원, 2002)<sup>9)</sup>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가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단순히 집안 일을 도와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사를 분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공유하는 남편과의 가사분담 공평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 <경제활동상태별 기혼 여성의 6세 미만 자녀보육자>

	보육 시설	시 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본인	남편	다른 자녀	방치	파출 부
관리자 전문직	46.4	17.9	32.1	3.6	10.7	0.0	0.0	0.0	3.6
준전문가	42.9	14.3	33.3	0.0	19.0	0.0	0.0	0.0	9.5
사무직원	59.0	10.3	15.4	15.4	5.1	2.6	0.0	0.0	0.0
서비스직	51.5	12.1	12.1	0.0	24.2	0.0	9.1	0.0	0.0
<b>판매직</b>	<b>65.7</b>	14.3	0.0	0.0	34.3	2.9	0.0	0.0	0.0
기능공	73.3	6.7	13.3	0.0	6.7	0.0	6.7	0.0	0.0
단순노무직	58.3	0.0	8.3	0.0	41.7	0.0	0.0	8.3	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2002 연구보고서 230-4)



## V. 결론 및 제언

첫째, 조사대상자인 판매직 주부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불공평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권론적 시각이 대두되고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공평성은 심각한 결혼불만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공평한 관계를 형성·발전시켜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둘째, 판매직 주부들은 직업역할에 비해 어머니, 가사 등의 가정 내 역할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직업인 역할은 어머니, 가사 등의 가정 내 역할에 부가하여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부수적 역할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판매직 주부의 역할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여성 취업과 가사공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공평성인지도와 역할스트레스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판매직 주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학자들은 공평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중심(예를 들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듣는 기술, 배우자의 욕구가 나의 욕구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 문제해결능력 등)의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업에서는 신입 주부들을 교육시킬 때 업무 교육과 병행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육한다면 그들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머니 역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이는 여전히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판매직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자녀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과의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취업주부 자신의 의식 변화이다. 판매직 주부 자신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당당한 직업인이 되어 자녀와 질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의 직장생활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하면서 자녀의 이해를 구하거나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동 책임으로 가정 역할 특히 부모역할을 공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판매직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판매직 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질적 연구 등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합산적 측정법으로 기여와 결과에 있어서 자신과 배우자의 차이를 계산하는 TUW(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 척도이다. 국내 공평성연구가 초기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연구대상을 신혼기 부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 등으로 세대별로 세분화하거나 직종별 특성에 따라 확대시켜 본 척도가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해 봄으로써 공평성척도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인지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병서(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 경향신문(2001). 국민체감 의식조사 발표, 여성 삶 최대 걸림돌 '일과 육아' 40%. 2001년 7월 23일자 33면.
- 계선자, 박미금(1994).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

-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6-117.
- 고정자(1998).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 만족도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비(1999).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와의관계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 교문사.
- \_\_\_\_\_ (2002). 교환 및 자원이론.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이론. 서울 : 교문사.
- 김영희(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2), 131-158.
- 김진희(1998).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경, 신현옥(1990).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의 상태와 문제. 한국여성연구회편. 여성과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도미향, 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6.
- 동아일보(2002). 텔레마케터 인기. 2002년 11월4일자 40면.
- 문숙재, 허경옥, 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33-47.
-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 서지원, 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10.
- 신기영, 옥선화(2000). 중년기 기혼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51.
- 안선자, 이정우(1996).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85-200.
- 양명숙, 하경란(1997). 모(시·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01-313.
- 이기영, 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이명신(1998). 맞벌이 부인의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 결정요인: 전문직과 생산직 모델비교. 한국사회복지학, 36, 199-227.
- 이미선(1995). 전문·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관리방안 및 가사노동관리만족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이여봉(1999). 부부간 평등 및 형평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1(1), 47-78.
- 이연숙, 이순형, 유기효, 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 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갈 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이은희(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 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288-314.
- 이정우, 강기연(2000). 도시 주부의 공평성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8(5), 41-54.
- \_\_\_\_\_, 박미금(2000). 도시 기혼남녀의 직업생활관리 및 직업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39, 171-205.
- \_\_\_\_\_, 정진희(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도시 중년기 주부의 의사결정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53-65.

- 이희정,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공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임혜경, 임정빈(1995).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 만족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5.
- 장혜경, 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겨울호 55, 151-178.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지원, 이정우(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 ·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8(9), 57-74.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정도와 지각된 대처효율성 및 관련변수.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옥선화(1998).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및 관련변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55-71.
-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도. *한국사회학*, 29, 559-584.
- 조희금(1995). 생산직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건강상태와 대처방안과의 관계 -대구시 생산직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8). 생산직 기혼 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67-180.
- \_\_\_\_\_(1999).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_\_\_\_\_, 이연숙(1998).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25-139.
- 차하순(1983). *형평의 연구*. 서울 : 일조각.
- 채정숙, 조희금, 박충선, 정영숙(1997).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대한가정학회지*, 35(4), 243-255.
-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홍운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da, Y., & Falbo, T. (1991).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resources, and power strategies. *Sex Roles*, 24, 43-56.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ird, G. W., & Bird, G. A. (1986). Strategies for reducing role strain in dual-career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6, 83-94.
- Blair, S. L., & Johnson, M. P. (1992). Wive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interse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570-581.
- Blanding, L. G. (1995). *Relational equity and household division of labor as predictors of marital, parental, and work satisfaction for dual-earner men and wome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h.D.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 New York.
- Davidson, B. (1984). A test of equity theory for marital adjus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36-42.
- Durkac, J. A.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care tasks among dual-career couples*. University of San Francisco. Ph. D.
- Duxbury, L., Higgins, C., & Lee, C. (1994). *Work-*

- family conflict : a comparison by gender, family type,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Family Issues*, 15, 449-466.
- Ferree, M. M. (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158-180.
-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 gender equity and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Geasler, M. J. S. (1990). Marital equity among dual-career couples. : A logitudinal perspectiv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h. D.
- Gilbert, L. A., & Rachlin, V. (1987).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dual-career famil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 7-49.
- Goldsmith, E. B. (1996).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West publishing Company.
- Greenstein, T. N. (1996). Gender ideology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household labor : Effects on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74, 1029-1042.
- Guelzow, M. G., Bird, G. W., & Koball, E. H. (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51-164.
- Hatfield, E. M, Traupmann, J., & Walster, W. (1979). Equity and extramarital sex. In M. Cook & G. Wilson(Eds.), *Love and attratction : An international conference*(pp. 309-321). Oxford : Pergamon.
- Higgins, C. A., Duxbury, L. E., & Irving, R. H. (1992). Work-family conflict in the dual-career family.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Decision Processes*, 51(1), 51-76.
- Keith, P. M., & Schafer, R. B. (1983).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77-884.
- Kollock, P., Blumstein, P., & Schwartz, P. (1994). The judgement of equity in intimat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340-351.
- Lennon, M. C., & Rosenfield, S. (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he importance of op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506-531.
- Longmore, M. A., & Demaris, A. (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lity*, 60(2), 172-184.
- McQuillan, J. (1998). Gender and marital power: Explaining the division of labor, perceived equity, and distress among two earner couples.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Ph. D.
- Mirowsky, J. (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 An equity mode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 Molm, L. D. (1991). Affect and social exchange: satisfaction in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 475-493.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and Social Behavior*, 19, 2-21.
- Peterson, C. C. (1990). Husband's and wife's perceptions of marital fairn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3), 179-188.
- Presser, H. B. (1994). Employment schedules among dual-earner spous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48-364.
- Reynolds, W. A. (1991). Equity, equality, and reward : A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ffect, and gender in later life marriages (elderly). University of Kentucky. Ph. D.
- Rogers, S. J. (1999). Wives' income and marital

- quality : Are there reciprocal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23-133
- Schafer, R. B., & Keith, P. M. (1981). Equity in marital role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59-367.
- Small, S. A., & Riley, D.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595-618.
- Spitze, G. (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595-618.
- Traupmann, J., & Hatfield, E. (1983). How important is marital fairness over the lifespa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7(2), 89-101.
- \_\_\_\_\_, Peterson, R., Utne, M., & Hatfield, E. (1981). Measuring equity in intimate relation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467-480.
- Vannoy-Hiller, D., & Philliber, W. W. (1989). *Equal Partners :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VanYperen, N. W., & Buunk, B. P.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87-309.
- Voydanoff, P., & Kelly, R. F. (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nov), 881-892.
- Ward, R. A. (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May), 427-438.
- Wesson, L. (1996).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career famil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 D.
- Wiersma, U. J., & Van den Berg, P. (1991). Work-home role family conflict, climate, and domestic responsibilities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207-1217.
- Yogev, S., & Brett, J. (1985). Perception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1), 609-618.

(2004년 3월 24일 접수, 2004년 11월 29일 채택)

<부록 : 공평성척도>

1 다음은 귀하와 남편께서 보다 나은 결혼생활을 위해 각각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숫자에 V표 해 주십시오.

-4	-3	-2	-1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문 항	-4	-3	-2	-1	+1	+2	+3	+4
1. 나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2. 나는 애정표현(입맞춤이나 포옹)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애정표현(입맞춤이나 포옹)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3. 나는 남편의 관심사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의 관심사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4. 나는 때때로 남편의 자유로운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때때로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5. 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6. 남편이 나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는 관심있게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남편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편은 관심있게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7. 나는 남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8. 나는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9. 나는 남편의 좋은 친구(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의 좋은 친구(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10. 나는 시장보기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시장보기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11. 나는 식사준비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식사준비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12. 나는 집안청소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집안청소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	+2	+3	+4

II 다음은 귀하와 남편께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숫자에 V표 해 주십시오.

-4	-3	-2	-1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문 항	-4	-3	-2	-1	+1	+2	+3	+4
1.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남편은 나의 사랑을 받는다.	-4	-3	-2	-1	+1	+2	+3	+4
2. 나는 남편의 애정표현(입맞춤이나 포옹)에 만족한다. 남편은 나의 애정표현(입맞춤이나 포옹)에 만족한다.	-4	-3	-2	-1	+1	+2	+3	+4
3. 남편은 나의 관심사와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남편의 관심사와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4	-3	-2	-1	+1	+2	+3	+4
4. 나는 남편의 이해 덕분에 때때로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 남편은 나의 이해 덕분에 때때로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	-4	-3	-2	-1	+1	+2	+3	+4
5. 나는 남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남편은 나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	-3	-2	-1	+1	+2	+3	+4
6. 내가 남편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편은 관심있게 들어준다. 남편이 나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는 관심있게 들어준다.	-4	-3	-2	-1	+1	+2	+3	+4
7. 나는 남편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 남편은 나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	-4	-3	-2	-1	+1	+2	+3	+4
8. 나는 남편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 남편은 나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	-4	-3	-2	-1	+1	+2	+3	+4
9. 남편은 나의 좋은 친구(동반자)이다. 나는 남편의 좋은 친구(동반자)이다.	-4	-3	-2	-1	+1	+2	+3	+4
10. 남편은 나와 시장보기를 분담한다. 나는 남편과 시장보기를 분담한다.	-4	-3	-2	-1	+1	+2	+3	+4
11. 남편은 나와 식사준비를 분담한다. 나는 남편과 식사준비를 분담한다.	-4	-3	-2	-1	+1	+2	+3	+4
12. 남편은 나와 집안청소를 분담한다. 나는 남편과 집안청소를 분담한다.	-4	-3	-2	-1	+1	+2	+3	+4